

## [ 오피니언 ]

## 월/요/광/장

박석두



1970년대 농촌을 훑은 것은 새마을 운동이었다. 전국의 모든 마을에는 낱이면 낱마다 이른 새벽부터 스트리퍼를 통해 '새마을 노래'가 울려 퍼져 온 동네를 잠에서 깨웠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우리 모두 일어나 새마을을 만드세/ (후렴)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박정희 정부의 노력 말처럼 마을 사람들은 새벽부터 일어나 마을 길을 넓혀 시멘트로 포장하고, 초가지붕을 걷어내어 슬레이트 지붕으로 개량하였으며, 흙 담과 물타리를 시멘트 블록 담장으로 바꾸고 고랑을 건설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와 내무부의 강압, 전국 3만3천여 개의 마을마다 몇 백포씩 무상으로 제공한 시멘트, 무엇보다 마을 사람들에게 부형식으로 내놓은 토지와 번강제적인 부역노동 덕분에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지 10년도 되기 전에 농촌의 마을에서는 초기지붕으로 대표되었던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시작된 새마을

운동은 나중에는 새마을 소득증대특별사업이나 새마을 공장 등 소득증대사업에 주력하게 되고, 농촌 새마을 운동에서 도시와 공장·직장으로 확대되었으며, 물질적인 잘살기 운동에서 근면·자조·협동을

## ‘마을 살리기 운동’을 시작하자

내세운 정신운동으로 변질되었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은 농촌의 겉모습을 바꿔놓는 데 그쳤을 뿐 농촌의 구조적인 변화를 이루지는 못하였으며, 1969년의 3선 개헌과 1972년의 유신체제 등 박정희의 장기집권을 위한 정치적 목적에 이용된다. 이에 전두환 정권에서는 비리와 부정의 온상이자 농가부채의 원흉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로써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동기 유발에 의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한 국민운동은 다시 부활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98년 외환위기

와 IMF 구제금융 사태를 맞아 ‘금모으기 운동’이 광범위하게 전개되었으나 잠깐 타올랐을 뿐 지속적인 국민운동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텅 비어가는 마을과 공동체 사회를 구하기 위해서는 거국적인 범국민운동으로서 마을을 아름답게 가꾸는 ‘마을 살리기’ 운동이 필요하다. 농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무엇보다 농촌에 일자리가 부족하고 생활환경이 도시에 비해 열악한 데 기인한다.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하여 마을 앞을 지나가던 도시민이 눈이 휙동그레져서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다니. 나도 여기에서 살고 싶다”고 절로 감탄하고 동경할 수 있는 마을이 되도록 가꾸는 것이다. 아무리 한들 편리성 면에서 농촌은 도시에 비할 바가 못 된다. 도시에서 누릴 수 있고 농촌만이 갖고 있는 것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느림의 미학, 무위자연의 깨감, 협력과 상생의 공동체 문화, 서로 알고 지내는 정이 흐르는 따뜻한 이웃 등등, 이런 자연환경과 경관, 공동체 문화를 전국의 농촌 마을에 되살리기 위한 ‘마을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자.

농촌을 살리기 위한 범국민운동은 그러나 ‘제2의 새마을 운동’이 아니라 새마을 운동과 반대되는 ‘반 새마을 운동’이라야 한다. 관의 강제가 아니라 지원, 전통과 자연의 파괴가 아니라 복원, 페인트가 아니라 꽃과 나무, 부역노동이 아니라 지원봉사, 반강제적인 농민의 토지기지가 아니라 자발적인 농민의 지원과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마을 살리기’ 운동이어야 한다. 철저한 민주주의 운동인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 본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도·농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농촌의 복지와 생활환경을 도시와 같은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도시가 갖지 못한 농촌의 고유한 장점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것은 숲이 우거진 산, 물고기가 뛰는 맑은 시냇물, 꽃과 나무가 늘어선 마을 길과 물타리, 안전하고 상심한 멍을 거리가 자라는 논과 밭, 한마디로 농촌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더욱 아름답고 풍요롭게 가꾸는 것이다.

지난 70년대의 새마을운동에 의해 사라져버린 농촌의 전통·경관·문화를 복원

## 시 설

## 불황 속 해도 너무한 학원비 편법 인상

겨울방학을 맞은 요즘 광주시내 유명 보습학원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 학원비 인상에 나선 모양이다. 방학 특강 등 학원비를 올리는 이유도 가지거나. 불황 여파로 가뜩이나 힘들어 겨울나기를 하는 학부모들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14일 광주지역 일선 학원과 학부모들에 따르면 광주시 동구 장동이나 서구 봉선동 일대의 유명 보습학원을 중심으로 올 들어 과목당 적게는 1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학원비가 올랐다. 이 중 상당수 학원은 방학을 틀린 학원비 인상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위해 수업 횟수와 시간을 늘려잡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

유명 보습학원인 A학원의 경우 지난해 월 15만원이던 학원비가 1월 방학 특강 명목으로 25만원으로 경총 뛰었다. 대신 수업은 2회 늘린 주 5회, 시간도 회당 고작 20분 늘리는데 그쳤다.

사실 자녀교육에 관한 한 부모들은 약자일 수 밖에 없다. 날로 치솟는 학원비

가 부담스럽지만 아이의 성적이 불안해 높은 사교육비를 감수하기 때문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총지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국공립 대학원의 납입금이 30% 가까이 상승했다. 학원비도 마찬가지로 올라갔다. 종합대학 학원비는 22.8% 뛰었으며 종합고입 학원비는 20.1% 상승했다.

학원비 편법 인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학원비 단속 역시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광주시 교육청은 최근 학원비 신고센터를 개통, 부당징수신고를 받고 있지만 인력부족 등으로 효과는 미미하다.

학원비 편법 인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물론 당국의 관리감독도 필요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일 뿐이다. 무엇보다 사교육시장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교육적 성취를 일궈내는 공교육 정상화가 급선무다. 교육 전반을 아우르는 긴 안목이 없는 한 백악이 무효다.

## 北 ‘군사 전면대결’ 위협 차분히 대응해야

북한이 남한에 대해 ‘군사력에 의한 전면대결’이라는 매우 위협적인 카드를 꺼내들고 압박에 나섰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17일 직접 나서 남측에 “전면 대결태세에 진입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그동안 보여준 북한의 대남 입장 표명 방식에 비해 매우 ‘고강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의 합동참모본부에 해당하는 북한군 총참모부가 전면에 나서 입장장을 표명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와 함께 서해 북방한계선을 지목하면서 군사적 대응조치를 언급해 죄악의 경우 남북 간 군사적 충돌도 배제할 수 없어 크게 우려된다.

북한은 이러한 ‘혈액’이 더 이상 한미 양국 모두에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북한은 스스로 구렁텅이에 빠지는 경 거망동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군당국은 서해 북방한계선과 군사분계선 등 접경지역에서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할 것은 물론이다. 우리 정부도 확고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한편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위기에 안보위기까지 덧씌워진다면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러한 ‘혈액’이 더 이상 한미 양국 모두에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야 한다. 북한은 스스로 구렁텅이에 빠지는 경 거망동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군당국은 서해 북방한계선과 군사분계선 등 접경지역에서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할 것은 물론이다. 우리 정부도 확고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한편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단호하면서도 유연하게 대처해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無等 鼓

우주에서 날아온 유성체가 지구 대기를 통과하는 동안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지상에까지 떨어진 입자나 덩어리를 운석(隕石·meteorite)이라고 한다. 대부분 소행성에서 만들어지는 운석은 태양계 초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따라서 운석을 연구하면 45억년 전 태양계 구성 물질들이 어떻게 생성됐는지 알 수 있다. 우주 생성과 생명기원의 비밀을 풀어줄 열쇠인 셈이다. 운석이 ‘타임머신’이라 불리는 이유다.

한국해양연구원 부설극지연구소가 파견한 ‘제3차 남극대륙 운선탐사대’(대장 이종이)가 최근 남극대륙에서 운석 8개를 새로 찾았다는 소식이다. 지질학

자와 오지탐사 전문가 등 5명으로 구성된 탐사대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남극대륙 티엘산 주변에서 탐사작업을 벌여 무게 6kg 이상인 석회질 운석도 발견했다. 지금까지 발견된 운석의 평균 무게가 240g 가량임을 감안하면 초대형이다.

이로써 우리나라에는 지난 2007년 첫

탐사에서 날아온 유성체가 지구 대기

를 통과하는 동안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지상에까지 떨어진 입자나 덩어리를 운석(隕石·meteorite)이라고 한다. 대부분 소행성에서 만들어지는 운석은 태양계 초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따라서 운석을 연구하면 45억년 전 태양계 구성 물질들이 어떻게 생성됐는지 알 수 있다. 우주 생성과 생명기원의 비밀을 풀어줄 열쇠인 셈이다. 운석이 ‘타임머신’이라 불리는 이유다.

한국해양연구원 부설극지연구소가 파견한 ‘제3차 남극대륙 운선탐사대’(대장 이종이)가 최근 남극대

륙에서 운석 8개를 새로 찾았다는 소식이다. 지질학자와 오지탐사 전문가 등 5명으로 구성된 탐사대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남극대륙 티엘산 주변에서 탐사작업을 벌여 무게 6kg 이상인 석회질 운석도 발견했다. 지금까지 발견된 운석의 평균 무게가 240g 가량임을 감안하면 초대형이다.

이로써 우리나라에는 지난 2007년 첫

탐사에서 날아온 유성체가 지구 대기

를 통과하는 동안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지상에까지 떨어진 입자나 덩어리를 운석(隕石·meteorite)이라고 한다. 대부분 소행성에서 만들어지는 운석은 태양계 초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따라서 운석을 연구하면 45억년 전 태양계 구성 물질들이 어떻게 생성됐는지 알 수 있다. 우주 생성과 생명기원의 비밀을 풀어줄 열쇠인 셈이다. 운석이 ‘타임머신’이라 불리는 이유다.

한국해양연구원 부설극지연구소가 파견한 ‘제3차 남극대륙 운선탐사대’(대장 이종이)가 최근 남극대

륙에서 운석 8개를 새로 찾았다는 소식이다. 지질학자와 오지탐사 전문가 등 5명으로 구성된 탐사대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남극대륙 티엘산 주변에서 탐사작업을 벌여 무게 6kg 이상인 석회질 운석도 발견했다. 지금까지 발견된 운석의 평균 무게가 240g 가량임을 감안하면 초대형이다.

이로써 우리나라에는 지난 2007년 첫

탐사에서 날아온 유성체가 지구 대기

를 통과하는 동안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지상에까지 떨어진 입자나 덩어리를 운석(隕石·meteorite)이라고 한다. 대부분 소행성에서 만들어지는 운석은 태양계 초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따라서 운석을 연구하면 45억년 전 태양계 구성 물질들이 어떻게 생성됐는지 알 수 있다. 우주 생성과 생명기원의 비밀을 풀어줄 열쇠인 셈이다. 운석이 ‘타임머신’이라 불리는 이유다.

한국해양연구원 부설극지연구소가 파견한 ‘제3차 남극대륙 운선탐사대’(대장 이종이)가 최근 남극대

륙에서 운석 8개를 새로 찾았다는 소식이다. 지질학자와 오지탐사 전문가 등 5명으로 구성된 탐사대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남극대륙 티엘산 주변에서 탐사작업을 벌여 무게 6kg 이상인 석회질 운석도 발견했다. 지금까지 발견된 운석의 평균 무게가 240g 가량임을 감안하면 초대형이다.

이로써 우리나라에는 지난 2007년 첫

탐사에서 날아온 유성체가 지구 대기

를 통과하는 동안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지상에까지 떨어진 입자나 덩어리를 운석(隕石·meteorite)이라고 한다. 대부분 소행성에서 만들어지는 운석은 태양계 초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따라서 운석을 연구하면 45억년 전 태양계 구성 물질들이 어떻게 생성됐는지 알 수 있다. 우주 생성과 생명기원의 비밀을 풀어줄 열쇠인 셈이다. 운석이 ‘타임머신’이라 불리는 이유다.

한국해양연구원 부설극지연구소가 파견한 ‘제3차 남극대륙 운선탐사대’(대장 이종이)가 최근 남극대

륙에서 운석 8개를 새로 찾았다는 소식이다. 지질학자와 오지탐사 전문가 등 5명으로 구성된 탐사대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남극대륙 티엘산 주변에서 탐사작업을 벌여 무게 6kg 이상인 석회질 운석도 발견했다. 지금까지 발견된 운석의 평균 무게가 240g 가량임을 감안하면 초대형이다.

이로써 우리나라에는 지난 2007년 첫

탐사에서 날아온 유성체가 지구 대기

를 통과하는 동안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지상에까지 떨어진 입자나 덩어리를 운석(隕石·meteorite)이라고 한다. 대부분 소행성에서 만들어지는 운석은 태양계 초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따라서 운석을 연구하면 45억년 전 태양계 구성 물질들이 어떻게 생성됐는지 알 수 있다. 우주 생성과 생명기원의 비밀을 풀어줄 열쇠인 셈이다. 운석이 ‘타임머신’이라 불리는 이유다.

한국해양연구원 부설극지연구소가 파견한 ‘제3차 남극대륙 운선탐사대’(대장 이종이)가 최근 남극대

륙에서 운석 8개를 새로 찾았다는 소식이다. 지질학자와 오지탐사 전문가 등 5명으로 구성된 탐사대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남극대륙 티엘산 주변에서 탐사작업을 벌여 무게 6kg 이상인 석회질 운석도 발견했다. 지금까지 발견된 운석의 평균 무게가 240g 가량임을 감안하면 초대형이다.

이로써 우리나라에는 지난 2007년 첫

탐사에서 날아온 유성체가 지구 대기

를 통과하는 동안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지상에까지 떨어진 입자나 덩어리를 운석(隕石·meteorite)이라고 한다. 대부분 소행성에서 만들어지는 운석은 태양계 초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따라서 운석을 연구하면 45억년 전 태양계 구성 물질들이 어떻게 생성됐는지 알 수 있다. 우주 생성과 생명기원의 비밀을 풀어줄 열쇠인 셈이다. 운석이 ‘타임머신’이라 불리는 이유다.

한국해양연구원 부설극지연구소가 파견한 ‘제3차 남극대륙 운선탐사대’(대장 이종이)가 최근 남극대

륙에서 운석 8개를 새로 찾았다는 소식이다. 지질학자와 오지탐사 전문가 등 5명으로 구성된 탐사대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남극대륙 티엘산 주변에서 탐사작업을 벌여 무게 6kg 이상인 석회질 운석도 발견했다. 지금까지 발견된 운석의 평균 무게가 240g 가량임을 감안하면 초대형이다.

이로써 우리나라에는 지난 2007년 첫

탐사에서 날아온 유성체가 지구 대기

를 통과하는 동안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지상에까지 떨어진 입자나 덩어리를